

가구산업연구센터 포천시에 유치한다



포천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가구산업연구센터가 유치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간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개최된 2004 가구산업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석한 오병익 경기도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오병익 의원은 경기도가 유치한 이 워크숍을 포천에 유치한 것은 가구산업연구센터를 대진테크노파크에 유치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가구산업연구센터를 포천에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첫째, 대진테크노파크 부지를 이용함으로써 부지매입비 2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포천에 600여개의 중소기업회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서 육성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과 셋째, 2006년에 완공되는 동서간 고속도로 형성으로 물류소통이 원활하다는 점과 넷째, 포천의 지가가 저렴하고 중소기업 설립이 유리하여 가구산업단지 육성에 적합하다는 점과 다섯째, 영북공업단지 조성시 싼 가격에 가구단지를 육성할 수 있다는 점등을 들었다.

경기도가 마련한 가구산업 연구센터 건립(안)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장규모가 크고 고용인력이 많은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식기반 전통산업의 고

부가가치화를 통일시대에 대비한 실질적인 기술집적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총예산 170억원으로 위치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

삼고실업 사옥신축 이전식



▲ 삼고실업(대표 최계주)은 지난 15일 군내면 하성북리 180번지에 사옥을 신축하고 이전식을 가졌다. 삼고실업은 스크린인크를 생산하고 있으며 월 6천 규모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대진테크노파크 부지제공 의사 밝혀

여 최적입지를 선정하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4천평, 건물 연면적 2천500평 규모로 디자인개발실과 부품개발실, 공정개발실, 공동장비실, 시제품제작실, 전문교육실, 전시실, 창업보육실(5실), 입주기업(10개), 사무실 등이다.

부지매입비 20억원, 건축비 1백 25억원, 장비구입비 25억원등 170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나 대진테크노파크에서 부지를 제공할 경우 20억원이 절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

한편, 대진테크노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진대 안준수 교수

는 "가구산업연구센터를 대진테크노파크에 유치할 경우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가구산업연구센터 건립사업은 대한가구공업조합연합회가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와 경원대학에서 실시한 가구산업 정책라운드테이블, 가구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포럼 등에서 제안한 내용을 기초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업계, 학계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il.net

우리 지역의 사업소 ㉓

이웃과 함께하는 병원 지방공사 포천의료원



원장 고영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의 중추적인 병원으로 육성, 고객만족중심의 병원화, 재정자립기반의 구축, 21세기 선진 병원화를 경영목표로 하여 지역주민의 의료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공사 경기도 포천의료원(원장 고영채)은 포천시와 철원군을 주 진료구역으로 하고 있다.

지난 52년 9월 미9군단 민사처병원으로 개설이후 54년 12월 보건사회부로 이관되어 국립포천병원, 57년 1월 경기도로 이관되어 경기도립포천병원 이 되었으며 지난 87년 지방공사 경기도포천의료원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 10월에는 서울대학교와 모자병원 계약을 체결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98년 11월 인턴 및 가정의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서울대학교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기구는 2부19과(진료과 15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과 감사, 이사회, 진료부, 관리부가 있다. 진료부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치과, 간호과, 약제과 등이며 관리부는 총무과와 원무과로 나뉘어져 있다.

150개 병상 시설을 갖추고 고영채 원장(50·사직)을 중심으로 진료에 나서고 있다.

진료외에도 포천의료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과 장애인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 가정간호 및 방문보건 연계사업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장례식장 운영은 가장 꺼림아게

장례식장 운영사업은 직영 운영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건전한 장례문화 지역사회의 정착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례예식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물품 구입은 경기도 6개 의료원이 공동구매에 의하여 구입하여 타 장례예식장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어 수요자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영수증 발급시 세부 단가표를 공개하여 신뢰성 있고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다.

장례예식장 운영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품격 있는 의식이 되도록 노력하고 미풍양속으로 관행처럼 행해졌던 풍습과 및 혼지는 사양하고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의료수급자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용객에게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및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각종 제상에서 상수가 수거해 가지 않은 음식은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한다.

장례예식장은 향후 지하층 및 1층을 증축 및 개보수하여 현대적인 시설로 6개의 접객실과 확장하며,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현재 미비한 각종 시설을 보완하여 올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

장애인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가정과 사회의 중심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으로 장애인시설과 공공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포천시 소재 장애인시설 14개소 349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원장, 진료부장, 전 진료과장 및 전 직원과 비 근무간호사와 호스피스 사업소, 갈월중학교 학생 다수가 장애인 무료검진 및 건강검진 사업에 참여했다.

가정간호 및 방문보건 연계사업

포천의료원이 최초로 포천시와 협의하여 추진

하는 가정간호 및 방문보건 연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포천의료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공공의료사업의 일환으로 가정간호 및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수급권자 및 이 지역의 의료취약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질병예방치료 및 재활의 포괄적인 보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표로 보건기관인 보건소와 연계로 질 좋은 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 확충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보건소의 취약한 방문보건사업을 포천의료원과 연계사업으로 보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사업대상장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역주민중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가정간호 및 방문보건연계사업

관리가 요구되는 자,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사업내용으로는 고혈압, 당뇨, 만성 퇴행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만성질환자 관리와 최근서비스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과 장기적 관리, 암질환자 및 중증 환자의 치료교육의 기회제공, 보호자 없는 중증 입원환자를 위한 간병인 병실 운영 등이다.

이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환자들의 의료비 절감 및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으로 치료효과를 증진하고 대상자 및 가족의 편안감 만족도 증진, 불안감 해소, 호스피스 효과, 보건과 복지의 통합서비스 연계로 삶의 질 향상, 무료 간병인 병실 운영으로 인한 입원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포천의료원 입장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 이미지 개선과 지역사회로의 병상확대,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포천시보건소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증진 효과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의 형평성 증진과 노인들의 노년생활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 보건과 복지의 통합서비스 연계로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 서비스 증폭 및 단절 소외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

20여년간 포천의료원에 봉직해온 고영채 원장은 "주민의식을 경영철학으로 하여 가족적인 분위기에 인화대결을 초석으로 하여 의료봉사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주 5일제 실시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다.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주5일제가 시작될 경우 노조에서는 시간의 수당을 지급받기 보다는 휴식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당장 진료공백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아울러 고 원장은 공공의료의 활성화 추세에 맞춰 경기도의 과감한 지원도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촬영영상은 필름현상과 관계없이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전송함에 따라 병원내 어디서나 조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고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포천의료원의 사업들이 성공하여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할기 기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il.net



▲지난 18일 장애인 무료검사 및 건강검진행사로 분주한 모습

SKT, 웰빙컬러링 서비스

금연 등 발신자 건강관리용 주파수 음원 보내

SK텔레콤(www.sktelecom.com 대표 김신배)은 휴대전화 발신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통화연결음 서비스인 '웰빙컬러링' 서비스를 무선인터넷 네이트(NATE)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 업체인 아이코(사장 정진영)와 공동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에서 기본음 및 발신번호별 통화연결음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 원하는 상태별 건강상태에 맞게 다이어트·금연·피로회복·집중력 향상·속면 등 7가지의 치료용 특수주파수 음원을 음악과 함께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한 치료 종류 및 주파수의 강도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

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취향에 맞춰 가요·팝·뉴에이지·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치료용 특수주파수 음원의 감수를 맡은 포천중문의대 차병원 강호식 교수는 "기존 기능성 음원들은 CD형태로 들어야만 치료효과가 있었으나 휴대전화를 통해 청취를 해도 효과가 있는 기능성 음원이 개발되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 효과는 이미 실험을 통해 확인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네이트의 컬러링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한 곡당 7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에너지 절약기술 효과 만점

페타이어 이용 난방기술 90% 연료비 절감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지난 겨울철 시설원에 농업인들에게 보급한 에너지 절약기술의 난방비 절감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부가 시대 시설원에 농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들이다.

에너지 절감형 난방장치 중 페타이어를 이용한 난방기술의 경우 경우보일러와 비교할 때 90%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온실 냉난방용 열펌프의 경우 경우 온풍기와 비교하여 70%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축열을 주머니는 야간 2~3, 지온 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는 버려지는 열의 85%를 회수이용하며 상하이동식 보온커튼의 경우 수평커튼

과 대비할 때 30~48%의 난방비 절감효과가, 지하수 이용 수막보온시설의 경우 하우스 내부 온도가 10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앞으로도 시설농업인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시설원에 환경조절과 에너지 절감기술'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요령과 효과 등을 자세히 소개하여 농업인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 내 시설원에 면적은 채소 6,139ha, 화훼 990ha 등 7,129ha이며, 이 중 난방을 하여 가온재배를 하는 시설은 1,882ha로 26% 정도이고 나머지 시설은 보온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더 크게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문) 포천시에 거주하는 홍길동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헐고 4층 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1개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려고 한다.

홍길동씨는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건에 맞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축해야 하나?

답)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 주택/주택 외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주택 외)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홍길동씨의 경우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지하층에 방을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옥탑방 등)을 건축하여 주택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크게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 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므로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병갑 기자 best114@hiteil.net

산업안전사고 예방

전기(전선 결선) 작업중 감전



활동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 때문이다. 정전이 곤란한 작업의 경우 작업자는 감전방지를 위한 절연보호장구를 착용한후 작업하여야 하나 이 또한 미착용 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반드시 해당전선로를 정전 후 작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다른 근로자에 의한 오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전표시 또는 전원투입 방지조치(시건장치 등)를 실시해야 한다.

정전이 곤란하여 작업할선 및 활동근접작업시 작업자에게는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를 지급·착용토록 한 후 작업이 되도록 지시한다.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점 문의전화 : 031)826-6091

2003년 9월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A형 사다리를 놓고 천장에 올라가 220V 전선로를 활동상태에서 전선피복을 벗겨 연결작업중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은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등의 작업시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체에 의해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하여야 하나